

종합

광주시·전남도,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실시

올 상반기 중·거래소 유치 대비 공공청사 중심 배출량 정하고 온라인 거래시스템 구축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 상반기 중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 실시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와 본격적인 탄소배출 거래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조만간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탄소배출량을 정하고,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날 말까지 '광주그린엑스'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체·대학·대형건물·대형마트 등 90개 기관의 기관별 감축계획을 확정하고 탄소배출권을 할당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들은 오는 6월부터 분기별로 할당량에서 남거나 부족한 탄소배출량을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통해 사이버머니로 거래하게 된다. 전남도 역시 도청을 비롯한 22개 시·군 청사 23곳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실시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기관들은 이미 2007년~2008년까지 사용한 에너지량을 토대로 기관마다 2%씩 감축 목표량을 한국환경공단

에 등록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자체의 탄소배출권 판매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 6곳에 2억원, 광주시는 90개 기관의 감축실적을 토대로 6억원의 인센티브를 각각 지급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에너지사용량을 지난해 대비 29% 감축하고 2012년까지 44% 줄이기로 하는 등 감도 높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시행중이다"며 "내년에는 대상을 전남도와 각 시·군 산하 사업소와 출장소, 직속기관으로, 2012년에는 도내 기업과 아파트, 상업

용 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축 목표량도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외에도 지금까지 유료로 수거해온 선종기, 청소기 등 소형 전자제품을 오는 7월부터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수거하고, 주민들이 자치구별 지정장소에 대형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 수수료를 낮추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를 힘에 힘을 싣기 위해 시범실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김지희기자 chadol@kwangju.co.kr

시설

일자리 창출 모델 '장흥 무산김 주식회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장흥 무산 김 주식회사'의 일자리 창출이 4월 대통령직 주재한 '국가고용전략 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돼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김 양식 어민들이 전국 최초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연간 4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24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내리 2년째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이제는 전국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흥 무산김 주식회사도 설립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어민들의 입장에서 주식회사가 주주라는 게 생소하고 출자금 내는 일도 부담이 됐다. 또 무산(無畝), 즉 산을 아예 쓰지 않는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1년여 동안 15차례의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면서 어민들을 설득한 끝에 마침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2월 110

명의 어민이 참여해 자본금 6억3천500만원으로 출범한 이 회사는 현재 연간 소득 40억원에, 김 양식 어가의 65%가 참여하는 기업으로 발전했다. 이 외에도 전남지역에는 완도 전복 주식회사, 나주 녹색계란 주식회사 등 농어민이 참여한 5개 회사가 1천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회사의 일자리 만들기는 고령화 속에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주민참여 주식회사가 실패한 사례도 많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품질관리나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 일류기업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전남도와 지자체에서도 이들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마련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해상풍력, 전남의 미래성장동력 기대된다

전남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남도와 해남군 등 전남지역 5개 지자체는 5일 국내 9개 기업과 '5GW급 풍력프로젝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17개 기업, 15조5천억원에 이르는 2차 협약으로 총 협약 규모만 37개기업 18조3천2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전남은 해상풍력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전남 서남해안 2천여개의 섬과 6천400km에 달하는 해안선은 수심이 얕고 북서 계절풍이 6개월 이상 관통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서남해안 풍력산업은 이미 지난해 5+2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의 호남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R&D(연구개발)자금 97억원이 업계에 지원됐고 250억원의 예산으로 목포대에 '풍력산업역량강화센터'도 구축됐다.

해상풍력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직접 고용만 2만5천명에 연간 30조원대 매출과 641억원의 지방세수가 예상된다. 또 청정에너지 생산으로 연간 2천억원 상당의 탄소배출권 수익 창출이라는 부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최근 극심한 침체기에 있는 전남조선산업의 공백을 대신할 새로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은 전남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만금 지역에 육상풍력단지를 유치한 전북도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국내 풍력설비 기술개발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대불산단에 조성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용단지를 활용하고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풍력산업 부품개발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레이더 피하는 '스텔스 군복' 만든다

국방부-지경부 개발 MOU에 따라 국방부와 지경부개발이 손잡고 차세대 국방사업 개발에 나선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5일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국방사업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군에서 사용하는 고기능성 융합섬유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지경부는 국방사업개선 로드맵을 세워 이에 따른 기술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장비 신체의 수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산 원자재가 사용된 피복·장구류를 우선 구매하고, 신기술 개발제품에 대한 시험 평가도 함께한다. 내년부터는 올해 구매액 기준 800억원에 달하는 수입산 군용 피복·장구류를 모두 국산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 양 부처 국방급으로 차세대 국방사업 협력회의를 구성해 국방사업 개발과 관련한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하고, 신형 전투복 소재와 고기능성 천막소재 등 개발을 위한 민·군 공동 연구 개발(R&D)도 진행한다. 정부는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섬유'를 비롯해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 의류, 방한과 투습 기능이 대폭 강화된 솜 쉬는 섬유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장비가 착용하는 피복·장구류에 첨단기술이 활용될 경우 전투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능을 갖춘 소재를 개발해 장비에게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처녀생식 연구 길 열린다

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 사람대상 모든 연구 윤리검증 이르면 내년부터 임상시험뿐 아니라 모든 사람대상 연구는 윤리 검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처녀생식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된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5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이하 생명윤리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는 수정란이나 체세포 없이 난자만을 이용한 처녀생식, 즉 단성생식 연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 현재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세포 복제연구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으나 단성생식 연구는 근거 규정이 없어 연구 승인이 나지 않았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培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2-8005)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18)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기자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다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민주 광주 경선 후보자 15일부터 접수

민주당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경선 후보자 접수가 오는 15일부터 이뤄진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5일 공심위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경선 후보 등록 공고를 한 뒤 15~18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기로 했다. 자치단체장 경선에 나설 예비후보는 각 자치구별로 500~840여 명까지의 지역 내 추천인을 받아야 접수해야하며, 광역의원과 기초 의원은 각 선거구에 따라 평균 150~200여 명의 추천인을 받아야 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수세계박람회 D-800일

여수세계박람회 D-800일을 맞아 5일 여수시청 광장에서 열린 범시민 참여 행사에서 오현석 여수시장과 이상을 여수세계박람회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성공 개최의 염원을 담은 기원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금호그룹 정상화 탄력 받을 듯

대우건설F1, 사모펀드 참여 등 채권단案 수용 동의서 제출키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과 대치해오던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채권단의 방안을 수용키로 하고 동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동의서 제출 절차는 다음주 초께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5일 "아직까지 새로운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재무적 투자자는 없지만, 가장 규모가 큰 오크트리와 오늘 오전까지 협상한 결과 새로 제안한 방안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오크트리가 주말내내 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 조만간 동의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미래에셋자산운용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곧 동의서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최근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39%의 대우건설 지분을 파는 대신 산업은행의 사모투자펀드(PFP)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동안 채권단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오크트리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이 방안

에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현재 펀드 투자자들을 상대로 동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다만 이 방안을 원치 않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대우건설 주식을 주당 1만8천원에 산업은행에 넘기고 나머지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채권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번 주말, 늦어도 8일까지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연합뉴스

물가 상승 현실화... 경기는 벌써 둔화 조짐

삼성경제연구 등 잇따라 전망 경기 상승기에 고점을 찍은 뒤 하강하고, 하반기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5일 민간경제연구소 등 경기예측기관에 따르면 경기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최근들어 흔들리고 있다. 경기가 1분기 또는 상반기에 정점에 이른 뒤 다시 내려가는 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경기 상승의 모멘텀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09년 12월 96.6으로 전월에 비해 떨어져 10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했고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또 장단기 금리차(국고채3년-콜금리)가 2009년 10월중 2.61%포인트 상승했으나 최근 들어 크게 하락한 것도 향후 경기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상반기에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송재혁 SK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

고서에서 "경기는 1분기에 고점을 찍고 2~3분기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발도상국들도 대체로 1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물가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총수요 위축에 의한 물가하락 압력은 올해 하반기 이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시중유동성 증가율도 개선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에 영향을 주는 유가와 환율이 불안하다"면서 "특히 국제유가는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어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웃음만평

- 김종두



월드컵때까진 웃음일이 없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남약신도시 주택·시설용지 분양

예정가 m당 평균 71만3천원 18일 신청... 19일 입찰·추첨

전남개발공사는 남약신도시의 주상복합, 단독주택(한국전용 및 일반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경쟁입찰과 추첨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경쟁입찰하는 주상복합용지의 필지별 분양면적은 5천86.9㎡~1만1천515.4㎡로 분양예정가는 m당 평균 71만3천원이다. 추첨분양하는 택지 중 가장 눈여겨볼 택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남약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급된다.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서 건축물 허용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공류게시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필지별 분양면적은 1만1천575.7㎡~13만5천364.2㎡로 분양 예정가는 m당 평균 단가가 37만3천원이다. 또 도시사 공간 약 12블럭의 한옥전용단지기 분양료로써 따라 단독28블럭 중 42필지를 한옥전용단지로 변경해 한옥과 양옥을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한옥전용단지인 '남약천년마을'의 필지별 분양면적은 245.8㎡~416.1㎡로 분양예정가는 m당 평균 39만2천원이며 2필지를 계약해 660㎡이하로 합병할 수 있다. 한옥이 아닌 일반단독주택용지의 필지별 분양면적은 310.0㎡~379.4㎡로 분양예정가는 m당 평균 45만3천원이다. 입찰·추첨 신청은 오는 18일이며 입찰·추첨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전남개발공사 10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